

보도시점 2026. 6. 15.(월) 15:00 배포 2026. 6. 15.(월) 10:00

## 공직기강 확립으로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 성과 창출 건인

- 50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개최, 중앙 및 지방의 정상화와 더불어 거버넌스 체계 강화키로

□ 정부는 6월 15일(월)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‘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\*’를 개최하여, ‘2026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’ 등을 논의하였다.

\* 50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참석

□ 회의에 참석한 감사관들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
□ 이를 위해 2026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중앙과 지방의 정상화를 중점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.

○ 첫째, 중앙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히 점검을 추진하고,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개선 필요 과제와 비위 혐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하였다.

○ 둘째, 지방의 정상화를 위해 행안부, 권익위 등 각 기관별 부정부패 점검을 강화하고 고질적 비위 분야에 감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.

- 특히, 지방 토착 비리 관련 각종 민원·제보·신고 등은 중앙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공직복무 점검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.

- 셋째,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공직복무 점검 거버넌스 체계도 강화한다.
  - 각 기관 감사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, 복잡·고도화된 비위의 경우 관계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.
  - 또한, 복무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조실의 공직복무 점검 결과 통보 후 특정한 사유 없이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.
  
-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핵심 정책은 더 빠르게 추진하면서 국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함을 강조하였다.
  
- 특히,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, 각 기관 감사관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	책임자	과 장 우향제 (044-200-2742)
		담당자	사무관 장이나 (044-200-2743)

